



평의 사육과 전망

4. 평의 수익성

평사육을 통한 수익성은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른 가축에 비해 인건비, 시설비, 사료비 등 적은 투자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 투자하여 소득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즉 자금회전이 늦은 단점이 있다.

평병아리를 길러 5~6개월 사육하면 기본성장을 완료하여 육종으로 출하할 수 있는데 대개 늦가을에서 겨울에 접어드는 철이 되면 현행으로는 수평의 $\frac{2}{3}$ 정도를 육용으로 출하하여 중간 수입을 얻는다. 나머지 수평과 암평은 이듬해의 종란용으로 거래되는데 당연히 고기평의 가격 보다는 고가이다. 늦은 봄부터 한철에 암평 1마리에서 평병아

리 30수쯤이 생산되므로 평병아리 분양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며 평병아리값은 산란의 계절성과 한정성 때문에 고기평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암평의 사육수가 더 많아지고 산란능력이 향상되면 평병아리값이 내릴 것이고 평의 전용사료가 개발되어 사료비가 절감되면 생산원가가 낮아져서 평사육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안정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평고기값도 일반 수요자들이 적합한 값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평고기의 수요와 공급에 원활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우선 사육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이 있어야 하겠다. 시설투자금은 평병아리를 포함하여 1,000수당 5,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평병아리가 태어나 5~6개월 자라서 출하하는 시기까지 사



평은
생후 5~8개월후면
식용으로 이용되어
자금회전이 시작되고
10개월후면 산란을 시작,
평병아리를 출하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료의 섭취량은 1,300원~1,500원내외이며 부화비, 전기료, 의약품비를 합산하면 1,700원~1,800원정도가 투자된다 볼 수 있으며 출하시 몸무게는 1kg 이상으로 성장되어 있으며 출하가격은 식당납품 가격으로 6천원~7천원 내외로 출하하고 있다. 현재 계통출하가 아닌 관계로 지역특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음을 볼 수 있으며 평균 6,000원 이상으로 출하되고 있다. 출하가격은 최근의 몇년간을 분석하여 볼 때 88년도 출하가격이 7,000원~8,000원 선이었으며, 89년도 하반기부터는 8,000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거래되었고 90년도에는 6,000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거래되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리라 보지만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약간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우리 사육자 입장에서는 6,000~7,000원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경우에는 가격동향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여건에 맞는 원가가 투입된다면 출하가격은 1마리당 5,000원까지 하향조정되어 폐사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평은 닭에 비해 번식력이 약하다. 닭은 일년내내 알을 낳지만 평은 봄에 40~60개의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닭에 비하여 번식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년내내 평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종조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수의 평병아리를 한철에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평병아리를 키울 수 있다. 평은 생후 5~6개월후면 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시작되고 10개월후면 산란을 시작하여 평병아리를 출하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 평병아리 분양가격은 1,500원~2,000원대이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평은 1마리당 6,000~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의 평사육기술은 식용으로 공급할 경우 평사육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이

지 닭이나 소, 돼지 사육기술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년내내 알을 생산할 수 있는 종평의 개발, 인공 수정과 날개수술의 실용화로 시설비와 생산비의 절감은 물론 닭과 같은 케이지를 사용하거나 육계 사육 방식으로 좁은 장소에서 많은 수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평사육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평사육 기술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을 사육하는데 한가지 기술이 첨부되면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박제기술이다. 평사육을 하다보면 죽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박제로 할 경우에는 폐 평처분과 소득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평은 다른나라 평보다 알아주는데 그것은 색깔도 뛰어나게 고우려니와 장끼(수평)의 목에 두른 흰

테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겨울철 평사냥은 이러한 것 때문이라는 말까지도 있다. 그러나 평은 번식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다. 1년이면 적게는 40개~60개의 알을 낳으므로 가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게 된다. 이는 농가에서 소득과 연결시켜 볼 때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이윤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사육을 시작할 때는 가격이 폭락할 경우도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현재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평사육을 하고 있는 사육자들이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환경과 경제여건을 생각하여 우선 소규모 평사육을 시작하여 사육 기술과 시장전망을 관망한 다음 확대한다면 농촌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계**

“91년도 신제품” / 평 안 경

■ 특징

- Plastic**
- 특수재질을 사용해서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여 철망이나 장애물에 잘 걸리지 않아 폐사율이 매우 낮음.
 - 부리사이즈에 꼭 맞음.
 - 떨어져 나가지 않음.
 - 형체나 구조가 사육실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음.
- Pin**
- 신주합금핀은 부식되지 않으며 장기간 사용가능함.
 - 그로 인하여 코 속에 염증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
 - 유사품 주의



※ 가격인하 판매

화인상사 (구 세진산업)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5-1
 본 사 : (02) 889-2533 (직통)
 (02) 872-6412 (교)

소화물·소포책임발송, 전화상담 환영